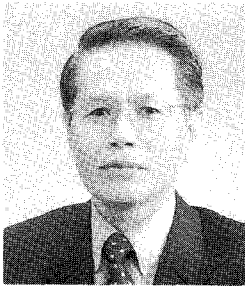


DDA 농업협상과 축산업 전망

- 2010년 닭고기 수입관세 절반 수준 예상 -



이 정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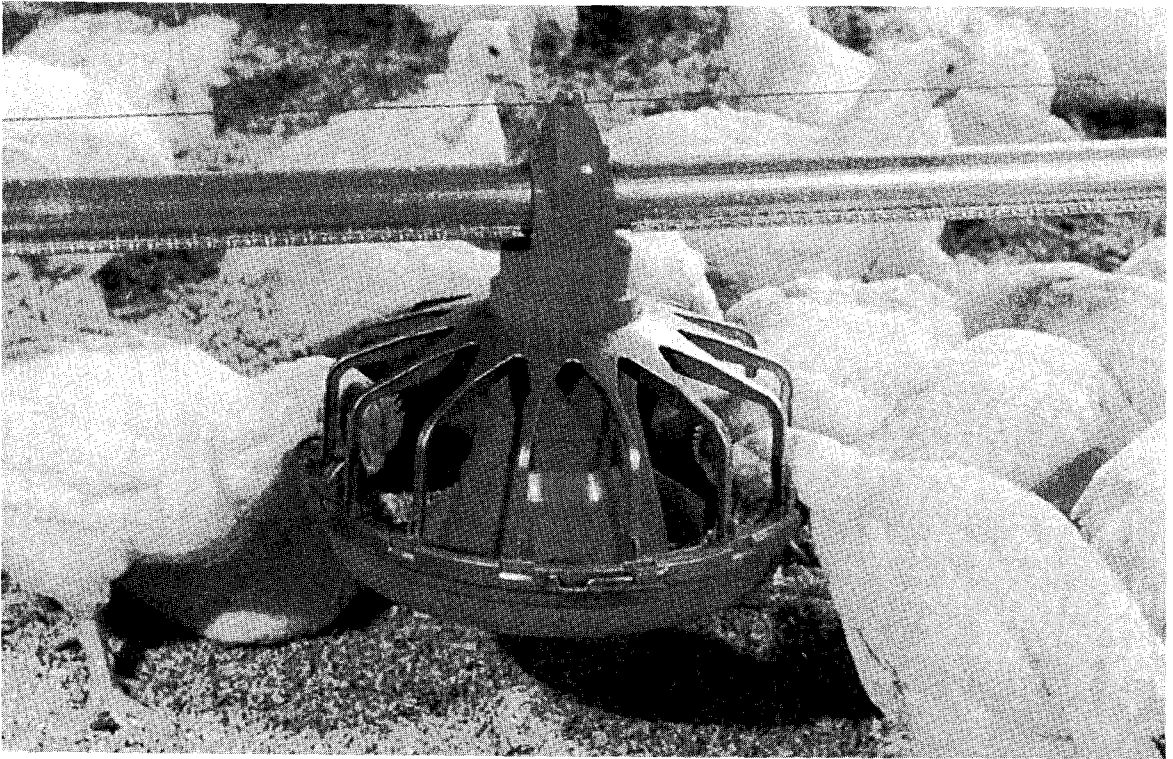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메 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는 결국 농업보조금 및 관세감축의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촉진 등 이른바 싱가포르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합의 실패가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나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농산물 수출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도 협상결렬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축산물은 지난 UR 협정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현재 관세만이 유일한 국경보호 수단으로 남아 있으나, 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상당폭 축소될 것이므로, 축산업은 조만간 완전 자유화가 가까운 시대를 맞을 것이다.

1. DDA 농업협상 추이와 칸쿤 각료회의 결렬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하여 본격화된 DDA 농업협상은 2002년부터 농산물 관세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에 관한 협상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관세와 농업보조금의 대폭 감축 등 과감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수출국과 이에 맞서 농업의 특수성과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주장하는 수입국, 그리고 개도국 농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개도국 우대조치의



확대를 주장하는 개도국그룹 등 3자의 대립구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월 하빈슨 의장의 세부분칙 초안(소위 하빈슨초안) 제시되었으나,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농업협상은 금년 4월부터 사실상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협상은 금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대사급회의에서 미국과 EU가 농업분야 공동제안을 발표하면서 급진전되었으며, 그 결과 9월 칸쿤 각료회의에 상정될 이른바 카스띠요 초안이 작성, 배포되었다. 카스띠요 초안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공동제안에 비해 개도국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 개막직후 협상 분야별 의장이 선정되고 작업반회의가 조직되어 새로운 각료초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이 각료초안에 대한 의논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각료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칸쿤 각료회의 결렬에 대한 원인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 이슈만으로는 결렬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오히려 농업분야에서 미국과 EU의 연합에 대하여 농산물 수출 개도국그룹인 G-21이 농업보조금 철폐 및 감축을 완강히 주장한 점과 서부 아프리카 4개국의 면화보조금 철폐 및 보상에 대한 선진국들의 미온적인 반응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어찌됐든 이번 각료회의는 과거의 다자간 무역협상과는 달리 미국과 EU의 협상 주도에 개도국그룹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칸쿤 각료회가 결렬되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분야 각료초안은 향후 농업협상의 기초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료초안에 제시된 관세감축은 먼저 농축산물을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상이한 감축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낮추되 전체 농축산물의 평균 감축율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

제1그룹에 속하는 품목은 UR방식을 적용하되 대신 시장접근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제2그룹에 속하는 품목은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낮추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3그룹에 속하는 품목은 관세를 철폐하든지 아니면 세율을 5%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세감축방식을 주요 축산물에 적용해 보면 관세 감축 폭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달라지는데, 닭고기의 2004년 관세가 20%이므로 선진국의 제1그룹에 포함되어 UR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0년 닭고기 관세는 17%가 된다. 그러나 제2그룹에 포함되면, 스위스 공식이 적용되어 닭고기 관세는 2010년 약 11%까지 낮아진다.

한편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제1그룹에 포함되면 2010년 쇠고기의 관세는 19%가 되고 제2그룹이 되면 약 16%가 된다.

최근 3개년 닭고기 도매시장가격이 2,344원/kg이고, 수입 닭고기 가격이 1,651원/kg이었으므로, 향후 국제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관세감축에 따라 2010년 수입 닭고기 가격은 1,300~1,400원/kg으로 지금보다 약 15~2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관세감축에 따라 2010년 수입가격이 3,520~4,200원/kg와 2,110~2,290원/kg가 될 것으로 보여 현재 보다 약 12~26% 와 12~19%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도 시장개방에 대비해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현재보다 약 15~20%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칸쿤 각료회의 실패로 농업협상이 표류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15일 안에 WTO 일반이사회와 사무국이 긴밀히 협조하여 고위급 일반이사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며, 당초의 설정된 기한 내에 DD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협상이 WTO 일반이사회 산하의 농업위원회로 다시 부쳐져 계속 논의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국내 보완대책의 수립에 한시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축산업의 경우 전체적인 관세수준이 20~40%대이고 2000년부터 자유화되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력이 커졌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관세 인하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성 증대노력이 뒤따라야 무한 경쟁의 무역 자유화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게**